



“주말연휴 법회참석 - 수련체험” 77%

본지는 주5일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예상되는 변화와 대응 방향을 살펴보기 위한 '주5일 근무제 관련 네티즌 불자 인터넷 설문조사'를 9월 27일~10월 11일까지 실시했다.

정부와 노사정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실시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주5일 근무제는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법정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으로 줄어들 경우 토요일은 휴무가 돼 일요일에 5일만 근무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고용창출과 사회 안정을 꾀한다는 것이 주5일 근무제 도입의 목적이다. 현재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지만, 정부는 단독입법 절차에 들어가 10월 안에 정부안을 발표하고, 내년 초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5일 근무제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본지 '주 5일 근무제' 불자 네티즌 설문

어떤 신행생활 하겠나?

법회-문화행사-자원봉사-공부順

교계 다양한 포교 프로그램 절실

▼네티즌 불자 긍정적 반응
이번 인터넷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86%인 501명이 정부가 추진 중인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해, 불자들의 대체적인 정서는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산사를 찾거나 도심포교당에서 신행을 하는 불자들이 늘어날 것(75%)이라고 전망했으며, 여가 및 레저활동이 늘어나 오히려

러 절을 찾는 불자들이 줄어들 것(14%)이라는 의견과 별 다른 영향이 없을 것(7%)이라는 의견은 소수로 나타났다. 또 주5일 근무제 실시가 불교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산사를 찾는 사람은 늘어나겠지만 신행과는 무관할 것이며, 불교계의 노력 여하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예상되는 불자들의 신행 변화
네티즌 불자 10명 가운데 8명(77%)

은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법회나 수련회 등에 참가하는 등 적극적으로 신행 생활을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매주 법회에 나가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주말수련회 참가', '불교문화행사 참가', '불교단체나 동호회 회원 활동', '불교복지시설 자원봉사', '교리 공부' 등에 힘쓸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응답자의 3%는 신행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들은 대부분 주말을 여가를 즐기거나, 어학공부 등 자기개발, 가족과 함께 보내

는 데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5일 근무제 시행 이후에도 지금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들도 18%에 달했다.

▼불교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네티즌 불자들은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대비해 불교계가 가장 시급히 준비해야 할 것으로 '정례화된 법회와 수련 프로그램의 마련'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불교 문화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사찰안내 및 홍보자료 마

련' 순으로 답했다. 기타 의견으로 1박2일, 2박3일 일정의 산사체험 프로그램 개발, 경전과 의식의 한글화, 불교문화콘텐츠 조성 등 다양한 의견을 내었다.

또한 네티즌 불자들은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불교계가 직면할 어려움으로 '전통사찰의 관광지화', '사찰 환경파괴', '불교인구 감소' 등을 꼽았으며, 수련 및 문화 프로그램의 부족과 미흡으로 인한 실망과 불신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은자 기자 elee@buddhapia.com



그림 · 이준석

설문내용 및 결과

1.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대한 의견은?	
찬성	501명(86%)
반대	73명(12%)
기타()	7명(1%)
2.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당신은 법회나 수련체험 등 신행 생활을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인가?	
그렇다	452명(77%)
아니다	23명(3%)
그대로일 것이다.	106명(18%)
2-1. 2번 문항에 대한 답이 '그렇다'라면 주5일 근무제 시행 이후 예상되는 구체적인 신행생활의 변화는?	
매주 법회에 나간다.	116명(25%)
교당대학 등에서 교리공부에 힘쓴다.	50명(11%)
주말 수련회 등에 참여한다.	91명(20%)
불교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한다.	50명(11%)
불교단체나 동호회의 회원으로 활동한다.	53명(11%)
각종 불교문화행사에 적극 참여한다.	73명(16%)
기타()	19명(4%)
2-2. 2번 문항에 대한 답이 '아니다'라면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될 경우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여가 및 레저생활을 즐긴다.	12명(52%)
어학공부 등 자기개발에 힘쓴다.	4명(17%)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린다.	3명(13%)
지금의 생활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4명(17%)
3. 주5일 근무제가 불교계에 미치는 영향은?	
산사를 찾거나 도심포교당에서 신행생활을 하는 불자들이 늘어날 것이다.	439명(79%)
여가 및 레저활동이 늘어나 오히려 절을 찾는 불자들이 줄어 들 것이다.	82명(14%)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다.	44명(7%)
기타()	16명(2%)
3-1. 주5일 근무제 실시 이후 주말에 만약 당신은 절에, 가족은 나들이를 가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절에 간다.	365명(62%)
나들이를 간다.	113명(19%)
기타()	103명(17%)
4.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될 경우 불교계가 가장 시급히 준비해야 할 것은?	
법회와 수련프로그램의 마련	289명(49%)
사찰 안내 및 홍보 자료 마련	78명(13%)
불교문화프로그램 정례화	186명(32%)
기타()	28명(4%)
5.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불교계가 직면할 어려움으로 예상되는 것은?	
전통인구 감소	87명(14%)
신종사찰의 관광지화	256명(44%)
사찰환경 파괴	198명(34%)
기타()	40명(6%)

불교계 '찬성' 기독교계 '반대'

종교계 반응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대해 불교계와 개신교계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불교계의 경우 대부분 사찰의 법회가 음력을 따르고, 문화재 사찰의 관람객 증대로 인한 포교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반기는 반면, 개신교계는 주말 교회 공동화 현상의 가속화 우려와 하루를 신에 헌신하려는 안식일 제도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5일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종교간의 대처방식도 다양하다. 불교계는 조계종단 차원에서 관광객 포교정책 수립, 사찰수행프로그램

개발, 도심사찰과 지방사찰간 네트워크 구성 등의 방안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겠다고 최근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조계종 포교부장 상운스님은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될 경우 불교계도 도심사찰의 타격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며 "그러나 주5일 근무제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종단적 대책마련과 함께 각 사찰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기독교계는 주5일 근무제 시행 반대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목회 참석자가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 기독교계가 주5일 근무제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다. 김원우 기자

'여행 + 수행' 프로그램 개발

불교계 할 일

주5일 근무제는 국민의 생활패턴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가와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 날 것이기 때문이다. 불교계에서는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 사람들의 생활패턴도 변화할 것이라는 데 주목, 저비용으로 다양한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활동반경이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1박2일과 금요일 저녁에 출발하는 2박3일 문화재 답사, 기도, 성지순례, 주말수련대회 등의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하루일정으로 사찰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리플렛 제작, 안내판 정비, 사찰 안내원 배치, 휴게시설을 겸한 불교 홍보실 마련, 일반인을 위한 대중법회 개최 등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사찰을 특성별로 분류하여 인터넷과 전화로 정보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사찰정보센터를 상설화 하여 주말을 이용해 사찰을 찾아 수련과 기도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해야 할 과제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도심사찰과 포교당도 도심공동화로 인해 기능이 축소되거나 정체되지 않도록 시민선방, 자원봉사활동 등의 다양한 신행문화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원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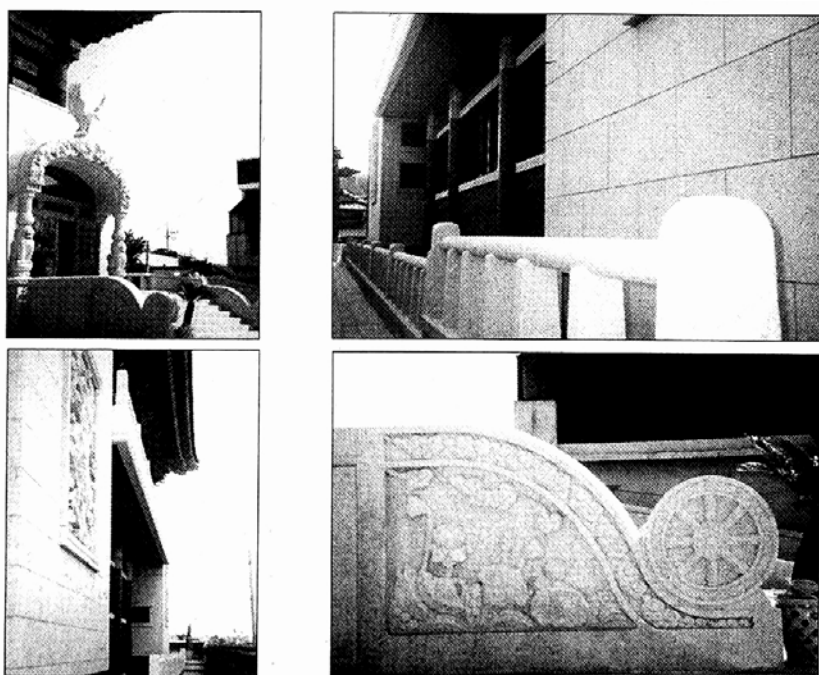
●조사방법

붓다뉴스 닷컴

20~50세 581명 설문

본지의 인터넷 일간불교신문 '붓다뉴스 닷컴' 설문조사 창과 붓다뉴스 회원 이메일을 통해 실시한 이번 인터넷 설문조사에는 20대~50대 이상 네티즌 불자 581명이 참여했다. 응답자의 연령분포는 30세~39세가 전체의 37%인 2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0세~49세 31%(183명), 20세~29세 20%(119명), 50세이상 10%(63명)순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 가운데 70%(408명)가 기혼자로, 29%가 미혼자(173명)로 나타났으며, 기혼자 가운데 58%(238명)는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석재 가공 및 석공사 전문건설업체 ◆



합동석물(주) 대표 탁희열
경북 고령군 다산면 나정리 714-10

전화 : 054) 955-8200~1 · FAX : 054) 955-8202 · 휴대폰 : 011) 509-1443

이제 조동선풍(曹洞禪風)을 일으키겠습니다 조계종(임제)과 조동종은 선종 양대산맥입니다.

소남(小衲)은 지난 5월 4일 조동종(曹洞宗) 적통(嫡統) 대본산(大本山)인 중국 강서성(江西省) 운거산(雲居山) 진여사(眞如寺)에 법당(法堂: 사법의 당기)을 세우고 정법안장(正法眼藏), 불조원류(佛祖源流), 조동종 제 50세의 사법자(嗣法子)로 운거산 진여사 방장(方丈) 일성선사(一誠禪師: 강서성 불교회장, 중국 불교회 부회장)의 증명사(證明師) 집전 아래 조동종 제49세인 해음동류(海音騰) 선사로부터 사자상승(師資相承)의 법을 전수받고 귀국하였습니다.

운거산 진여사는 일천여년전 구산선문(九山禪門)중 수미산(須彌山)을 개산한 신라승 이엄진철(利嚴眞澈) 선사가 조동종제2조 운거도용(雲居道膺)선사회하에서 참학심인(參學心印)받음 바 있는 도량입니다. 운거산 진여사는 개산(開山) 1200여년의 법등(法燈)을 밝혀온 선찰(禪刹)로 백장농선(百丈農禪)의 가풍(家風)을 실천하는 도량이며 돈오선풍(頓悟禪風)을 제일의로 표방하는 조동선(曹洞禪)의 대본산입니다.

또한 일찍이 조주선사(趙州禪師)가 주석한 바 있는 사적(史跡)인 조주관(趙州關)이 있고 임제(臨濟)의 종장 원오극근(圓悟克勤)선사와 대혜종교(大慧宗杲)선사가 주지를 역임한 곳이기도 합니다.

소남은 일천여 년간 단절되었던 조동선맥(曹洞禪脈)과 선풍을 복원하는데 전력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바랍니다.



韓國曹洞宗總本山

창종위원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5-152 원효사
전화 02)704-8065 FAX 02)704-8064
홈페이지 www.jodong.go.kr (11월 중순개방)

중국 조동종 제50세 한국 법종 사법자
삼각산 원효사 금선학봉(今禪鶴峰)합장